

Elaine Phillips 박사, 구약 문학, 강의 26, 전도서 및 아가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서류를 마쳤나요? 이미 이메일로 여러 건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주말 동안 독서를 중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알려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으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노래의 절반, 음, 3분의 2를 배웠습니다.

이 노래의 기반이 된 구절이 어디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외에도 우리는 그것을 가질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놀라운 선물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선물에 매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사순절을 맞아 성주간을 맞아 바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를 향한 풍성한 사랑과 감사를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심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실재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가 정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것들의 진실을 깨달은 결과로 우리가 결코 전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픈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큰 어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영으로 그들과 함께 사역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빛이 절실히 필요한 전 세계의 문제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서 말할 뿐 아니라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명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왕국의 종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쎄, 우리는 오늘 전도서와 아가서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듯이 조금 리뷰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위치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 문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 틀에서 솔로몬을 다루었기 때문이고, 네 권의 지혜서 중 세 권은 어떤 식으로든 솔로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자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뱉어내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적 지혜의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한 일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 뿐 아니라 지혜 자체의 일부인 것들을 생각함. 현명하게 선택하고 경건한 선택을 하는 능력. 경험에 비추어 진리를 삶에 적용합니다.

작은 종소리가 울리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그러한 추측적인 지혜를 다루는 몇 가지 원칙도 다루었습니다. 즉, 욕기와 전도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정 문제를 다룰 때 더 넓은 맥락에서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즉, 욕기를 읽을 때 단순히 친구의 진술 중 하나만 읽고 전체 그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전체 주장의 전개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대부분의 시간을 전도서를 다루면서 우리가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읽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경우에 갈 목표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이 책이 왜 성경에 있나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주님을 찬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거기에 있습니까? 레베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 수사적인 질문은 아니네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사실 저는 답을 찾고 있어요. 좋아, 정말 좋아. 이는 모두가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정점은 죽음이다. 우리 모두는 그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도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좋은. 다른 건 없나요? 내 말은,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쾌락주의적이고 비관주의적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그 모든 종류의 불쾌한 것들.

카시아. 좋아,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고 삶을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특히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로써 우리의 발이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해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 그렇다면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잠시 후에 그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12장 12절의 후반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학기 중 이맘때, 특히 피곤할 때 학생들을 위한 멋진 구절입니다. 책을 많이

만들면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이 피곤해진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합니까? 좋은.

당신도 다음에 나올 내용을 좋아할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의 오락을 위해 약간의 Calvin과 Hobbes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도서에 대한 훌륭한 칼빈과 홉스의 책임입니다. 특히 바로 거기 있는 프레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일종의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알았어, 알았어. 따라서 모든 프레임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덧없음, 삶의 소멸,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꽤 흥미롭습니다. 전도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Calvin과 Hobbes를 흡수하고 조금 즐겼다면 이제 화면 상단으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 헤벨' 입니다 . 헤벨 . [hevel 로 발음]이라고 말해보세요.

헤벨. 특히 시작 부분에 H가 있습니다. 괜찮은? 흥미롭게도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때 의미가 없거나 헛된 것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제가 제안하는 바는 그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어 자체는 단순히 호흡 또는 증기를 의미합니다.

아니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여러분이 앉아서 전도서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무의미해 보일 때마다 30번 정도 마음속으로 메모해 두십시오. 일시적이라고 읽어보세요.

일시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 책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우리의 틀을 바꿀 것이고,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헤벨의 중요성 .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전도서에는 이 단어가 3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책의 시작과 끝을 구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으로 가고 싶은 곳은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1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에는 2절이 나와 있습니다. 의미 없이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NIV가 그런 식으로 번역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시적인 내용을 읽을 것입니다. . 아니면 그냥 hebel은 어떻습니까 ? Hevel, hebel은 교사 또는 설교자를 말합니다. 물론 헤벨 이죠 .

과도 현상.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이것이 책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1절의 짧은 소개 이후입니다. 그리고 물론 12장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8절이 에필로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감 북엔드입니다. 또, hebel , hebel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헤벨 입니다 .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심고 싶습니다. 적어도 다음 시험에서는 그것을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해설자들이 이 책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 30년 동안 이 책을 일시적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으며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무의미함과 연관되는 부정적인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매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전도서 연구에는 지속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번역하고 히브리어 의미가 암시하는 대로 즉 호흡과 증기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몇 가지 흥미로운 일이 계속됩니다.

숨을 쉴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일이 반복됩니다. 전도서가 그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그 점을 눈치채셨나요? 똑같은 일이 다시 돌아오고, 그것은 개념적 반복입니다. 아마도 호흡과 비슷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두 번째 하위 글머리 기호입니다.

호흡은 참으로 짧다. 나는 3분 동안 숨을 들이마시지 않고 3분 동안 숨을 내쉴다. 그것은 지속적인 호흡이지만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물론, 전도서의 저자가 죽음, 즉 자신의 유한성이라는 현실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긴장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잠시 후에 그 문제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기서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Cain and Abel로 읽습니다. 아벨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헤벨. 그것이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글썄요, 가인이 일어나서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일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삶이나 헤벨의 삶에서도 우리는 죽음이 너무 짧아서 너무나 귀중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좌절감을 봅니다. 좋아요, 한 가지만 더요.

나는 이것을 이미 암시했지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린 것이다. 내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이해합니까? 즉, 의미가 없다면 추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일부로 갖고 싶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거하세요.

그것은 무언가가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서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일시적인 헤벨이나 하벨, 하벨 림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는 그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자신이 한 일, 그가 가졌던 관계, 그가 참여한 일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그것을 전혀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없어질 거야." 죽음은 나를 데려갈 것이고, 따라서 나는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의 더 많은 내용을 다루면서 최소한 한 가지 가능한 고려 사항으로 이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영어로 말하고 있나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 태양 아래에 관해 이야기할 때 제안한 것처럼, 이 책에는 또 다른 핵심 문구가 등장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는 코헬렛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이름인 코헬렛이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보았다.

나는 이것을 보았고, 나는 보았고, 나는 불의를 보았고,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눈을 통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계는 책에서도 그들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서 1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을 옆두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땅에 대한 저주는 타락의 결과요, 이제 모든 것이 수고와 수고와 고통과 번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겠지요? 그것은 전도서 첫 장의 시인 첫 장에 반영되고 반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자가 누구이든 이 사람은 자신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해요, 보았습니다, 해 아래에서 보았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보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반복됩니다. 자, 그것이 그가 보는 전부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관점입니다.

방금 Cassius가 말했듯이 현실 확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바람을 쫓거나 바람을 따라 애쓰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다시 한 번, 그 시작 시, 즉 태양과 태양 아래, 바람 아래서 바람을 쫓는다는 전체 개념을 보면 5장, 미안합니다, 1장 5절과 5장에서 그들을 위한 무대가 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6. 해는 뜨고, 해는 지며, 떠오르는 곳으로 서둘러 돌아간다. 바람은 북쪽, 남쪽으로 분다, 알았지? 해와 바람, 그리고 그것들은 누군가가 이 세상에 살고 애쓰고 애쓰고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는 문구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앉아서 바람을 쫓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글썄, 당신은 앉지 않습니다. 바람을 쫓으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내 말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쫓아 쿼드로 나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운동을 원한다면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착하기 어렵고, 일시적이며, 아마도 이것이 여기서 얻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신이 그 일을 시작할 때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연습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무엇이든 타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건 이미 말했어요.

아, 미안해요. 그거 타탄에 대한 불쾌한 말이었나요? 천국은 방어합니다. 제 말을 인용하지 마세요.

여기 아무도 Tartan에 대해 글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신경쓰지 마세요. 타탄에서 내리자, 알았지? 물론 그것은 우리를 어떤 이익이나 좋은 쪽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아, 미안해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문구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이익이 있나요?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걸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소용? 이 모든 추구에는 어떤 궁극적인 이점이 있습니까? 관찮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건 쾌락주의일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다른 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맥락에서입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의 대규모 병렬 처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병렬성을 기억하시나요? 아시다시피, 시의 한 줄을 다음 줄에서 종합적이거나 동의어적이거나 반대되는 반영으로 뭔가를 합니다. 전도서 시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자가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유한성

, 타락성, 타락성,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또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장의 끝입니다. 5장. 6장. 알다시피, 그 작은 후렴구가 가끔씩 당신과 나에게 천국이 열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것은 일종의 부활절 관점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현실과 성령께서 실제로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할 때 얻게 되는 일종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진실은, 나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살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내 불안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직하다면 당신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관점에 도달할 때 그것을 즐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겨워하는 것은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든, 우리의 관계이든,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개념적 평행성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매일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관점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의 일부입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응, 사라. 나는 천국에 대한 고대 유대인의 인식과 우리의 인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천국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은 우리와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아, 너무 큰 질문이니깐 평소대로 정말 빨리 끝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 중 하나는 단순히 하늘입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는 실제로 하늘과 하늘 위, 하늘 중의 하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것이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구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윌슨 박사의 책은 그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구원과 구출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지금 그들의 삶에 달려 있는데, 나는 욥기 19장에서도 그 점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에 관해 분명하게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늘의 영역인 어떤 것을 봅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미가야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첫 장에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천국의 여러 층이나 수준에 대한 전체 개념이 발전했으며 실제로 이것이 우리 신약성경 사도의 일부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천국의 세 번째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 2서와 성서 중간의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위한 나의 빠른 대답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즉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집중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늘 아래라는 말을 단순히 해 아래, 하늘 아래와 평행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미야는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의 원래 부분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복잡한 일이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구성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현, 하벨 habelim은 책을 북엔드하는 역할을 하며,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 전에 1장 1절의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설교자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자손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12장으로 가보면 그 특정 하벨 이후에 하벨림 님 , 에필로그가 있는데 코헬렛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몸을 피곤하게 하는 공부에 관해 제가 방금 읽어드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게 되므로 중요합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인류의 전체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그것은 판단에 관한 일종의 도전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에필로그의 일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틀과 그 구조, 그리고 이 북엔드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제안하는 것처럼, 2절에 이어지는 1장의 시는 삶의 고뇌, 반복성, 명백한 단조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부인 노력과 노동.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내용을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책 마지막에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감동적인 시 중 하나가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음, 7절, 실례합니다

네가 청년의 때 곧 환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 후에는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읽으면서 그 시를 기억하시나요? 시는 무엇을 묘사하는가? 저자는 줄곧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정말로 설득력 있고 가슴 아프며 가슴 아픈 이 짧은 시에서 그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창조자를 기억하십시오. 3절, 해와 달빛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구부러지며 맷돌질하는 자가 적으므로 그치기 전에 창으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며 문들이 어두워지리라 거리까지 닫혀 있고, 갈리는 소리도 사라진다.

무슨 일이야? 그냥 그라인딩이나 창문, 격자 같은 것들에 대해 떠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고개를 저으세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여러분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거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리고 노년기에 죽기 직전에 인간의 몸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거리의 소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가 없습니다. 그라인더는 거의 없습니다.

팔다리가 더 이상 당신을 지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몸을 구부리고 구부렸습니다. 따라서 그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죽음이 마침내 이 사람을 완전히 앗아가기 전에 어떻게 이 사람을 천천히 잡아먹는지에 대한 놀라운 설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줄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지기 전, 물 주전자가 샘에서 부서지기 전, 바위가 우물에서 부러지기 전의 마지막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는 그것이 나온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창세기. 3장.

그렇다면 이 책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우리가 필멸의 운명과 저주의 영향, 죄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구조 측면에서 이미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수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한편으로는 태양 아래의 삶 사이의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대위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말했으므로, 여러분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멈춰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고 계시며, 그토록 풍요로움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분의 임재.

그리고 물론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조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 번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그것은 수고와 수고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이 있어요. 당신은 돈을 위해 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와 노동.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반복의 의미를 얻으십시오.

그들은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일치를 제공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일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번 교훈을 얻어야 하며, 죄 많은 인간 존재의 일부인 그런 것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복이 끝없이 징징거리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된다면 생각의 느린 진화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전도서의 저자는 hebel 이라는 내용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그 책을 읽을 때에는 심각한 악이라는 표현이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4장에 나타나며, 일종의 강력한 존재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 일에도 정말 사악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특히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일어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5장입니다. 이 책의 중심은 아니지만, 이 책의 일종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지키라. 어리석은 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가서 들으라.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은 실제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저자의 인식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악은 그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죄, 악, 나쁜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ra . 죄송합니다.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악을 의미합니다.

매우 흥미롭고 역설적인 또 다른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악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본성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의 다른 측면은 책의 끝 부분에 이르면 특히 10장에 있지만 11장에도 약간의 그의 생각이 거의 가벼운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언처럼 들리는 몇 가지 잠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잠언에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같은 재미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마치 작가가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무게 속에서도 좋은 유머를 위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대해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아직 거기에도달하지 못했지만 어느 시점에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삶의 좌절스러운 것들에 대해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될 때, 고통스러울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머 감각을 타고난 사람은 그런 면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구조에 대한 일종의 감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일부에는 틀, 반복, 개념적 발전, 그리고 지속적인 그의 생각과 인식의 성숙 등 다양한 구조적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수잔나, 왜요? 아마도 예루살렘 왕 다윗의 자손이겠죠? 그리고 확실히 아시다시피 2장을 읽으면 솔로몬처럼 들립니다. 그는 하렘을 얻습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물건을 만듭니다.

아마도 솔로몬처럼 들릴 것입니다. 응, 닉. 예, 그는 확실히 지혜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솔로몬과 연관시킨 큰 W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코헬렛 사람이죠, 그렇죠? Kahl 은 회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이므로 Kohelet은 회중에게 연설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번역 중 일부는 선생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를 설교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난 그냥 이걸 밖에 버릴 테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Kohelet은 단지 재미를 위한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 군주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우리의 왕국이 분열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월요일에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큰 지혜, 큰 부, 큰 건축 프로젝트, 이 모든 것이 훌륭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솔로몬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9절은 내가 정했다고 말합니다. 미안해요. 이것은 많은 속담과 함께 정리된 3인칭 에필로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잠언을 몇 개나 썼습니까? 기억하시나요? 3,000 맞죠.

그러니 확실히 솔로몬처럼 들립니다. 이제 이것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의 언어는 매우 특이합니다.

히브리어는 매우 특이합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히브리어의 일부와 언어학적으로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보다 늦었다고 제안합니다. 마치 자신이 솔로몬인 것처럼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솔로몬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완료된 거래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생각해야 합니다.

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나중에 기록되었으며, 특히 솔로몬의 말년에 있었던 좌절감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사람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말은, 이것은 솔로몬이 정말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것을 깨닫고 삶의 노골적인 즐거움과 같은 일부 영역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노인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고있다.

솔로몬이라면 왜 자신을 코헬렛이라고 부를까요? 나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위해 그것을 거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면 왜 그를 설교자나 교사로서 회중에게 설교하는 코헬렛이라고 부를까요?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가치가 무엇이든 여성 명사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위기가 있고, 제가 방금 말한 것들에 대한 요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가 책 전반에 걸쳐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지에 관해 약 4개의 글머리 기호로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코헬렛은 알면 알수록 고통도 커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많이 온다... NIV에서는 슬픔을 말한다. 하지만 그거 알아? 너무 부드럽습니다. 분노에 대한 정원의 다양한 단어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분노도 많아진다.

지식이 많을수록 고통도 커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보고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이런 일은 참기 힘든 일입니다.

알바트로스 머리를 모래 속에 집어넣고 심지어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일어나고 있는 악의 공포에 압도되기 때문입니다. 코헬렛의 말이 딱 맞습니다. 지혜가 많을수록 고통도 커지고 분노도 더 커집니다.

특히 악에 대한 분노. 내가 앞서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실제로는 hebel 입니다 . 그것은 여기에 있고 사라졌습니다.

죽음이 그것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모든 사람의 죽음을 평준화하는 것에 관해 할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죽기까지 이르면 의인과 악인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실질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범주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

그 모든 성적을 좋은 성적표를 얻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편하게 은퇴하기 위해, 그저 노예로 삼고 있는 그 모든 성적들 . 헤벨. 그것이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

헤벨 이에요 . 기쁨. 그는 온 힘을 다해 즐거움을 탐구합니다.

헤벨 입니다 . 존재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7장 26절부터 28절. 코헬렛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솔로몬이라면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발전시키지는 못했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여성과 관계에 대해 고통스러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만이 유일한 곳은 아니지만 사실 꽤 씁쓸함이 느껴지는 곳 중 하나이다.

개인적인 중요성이 부족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묘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찌죠? 더 이상 그것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비명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이드 트랙입니다.

인류. 죽음은 불가피합니다. 불확실성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기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이것은 실존적 위기입니다.

더 나쁜 것은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의. 그런데 4장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한 이 구절은 단지 대표적인 샘플일 뿐입니다. 완전한 목록은 아닙니다. 불의는 5장에서도 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8장도요. 글썄요, 우리의 개념적 평행성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위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인간적 위기로 인해 우울증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속성에 대한 인식을 주셨습니다. 안정. 그것은 때때로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3장,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에서는 모든 것을 위한 시간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계절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이 시를 쪼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지혜 서적을 선택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시간, 저것을 위한 시간. 그리고 그것은 대위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측 가능한 대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말했듯이 좋은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돌아가는 곳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3장 시 다음의 1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셨 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마음 속에 영원을 두셨습니다.

자, 그것은 정말 심오하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알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려는 충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올람(Olam), 곧 영원을 우리 마음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구절의 후반부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다시 우리의 유한성을 인식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신 일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선물들이네요.

그는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 코헬레트는 인생을 즐깁니다. 그는 우리 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 정말 괴로운 일도 있었지만 즐길 일도 있었고, 알아가는 걸 정말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그는 일과 즐거움이 헤벨 이라고 말한 후에도 그것을 즐깁니다 . 이 구절들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일에서 만족을 찾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없다면 누가 먹고 즐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관계.

아마도 이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장에서 나오는 괴로움 때문에 7장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그 대신 4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봅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습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면 그의 친구가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으면 따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압도당하더라도 두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함께 있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관계는 중요하며 코헬렛은 관계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이 모든 것의 다소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반직관적인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끝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미 11장에서 그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일의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그는 반드시 심판하실 자시니라. 그리고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그 메시지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글썄, 내가 말해주지.

만약 그가 불의를 관찰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책 전체에서 그것에 대해 읽었기 때문에 그가 인류의 유한성과 그 안에 모든 좌절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가 긴장과 스트레스와 시련으로 가득 찬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한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살롬을 다시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소집 주제를 위해 여기에 오셨다면 이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좋아요, 계속하기 전에 질문 있나요? 다음은 Song of Songs인 것 같아요.

예. 아가서로 넘어가기 전에 전도서에 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나는 이 일을 정말, 정말 빨리 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가서에도 공평한 손길을 주어야 합니다. 전도서에 관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권고는 책의 시작 부분에 메모를 해 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당신이 그 의미 없는 문구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읽을 때 적어도 스스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그냥 시도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는 노래의 노래로 갑니다. 히브리어로 하늘의 하늘처럼 노래의 노래, 노래의 노래는 최고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최상급, 최고의 노래를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러분이 읽어야 할 내용에 대해 윌슨 박사의 글을 읽었다면 이 다섯 권의 작은 책인 아가가 히브리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그것들은 5개의 메길로트 , 5개의 두루마리 라고 불리며 축제 시간에 읽혀집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아가서는 곧 다가오는 유월절에 읽혀집니다.

4월인 것 같은데, 뭐, 20? 아니요, 그보다 더 이전입니다. 글쎄요, 달력을 잘 보세요.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우선 이 노래가 왜 제일 좋은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월절에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사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응답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노래를 최고의 노래로 만드는가? 어서 가세요, 수잔나.

이것이 그것을 읽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수세기 동안 이 책이 해석된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것은 우리의 유월절 연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시내산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들은 것 같아요.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세우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법은 그의 사랑의 표현이지 않나요? 언약은 관계를 확립하며, 종종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결혼 언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인간의 결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작은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그것을 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노래인 유일한 이유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항상 이 글을 읽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그렇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읽은 아주 초기의 랍비 해석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나의 비둘기 에 대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 그거 읽은 거 기억나? 바위틈에 숨어 있는 나의 비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이스라엘로 읽혀진다. 아니면 파라오의 병거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는 일종의 이집트 연관성을 제공합니다.

또 왜 이것이 최고의 노래가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청소년 그룹이나 교회 등에서 이 책에 대한 설교나 발표, 연구를 해보셨나요? 아, 좋아요. 용기를 내어 손을 조금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메리, 그 연구는 무엇에 중점을 두었나요? 응, 그리고 섹슈얼리티도 그렇지? 그리고 아가서는 그 문제, 그 주제, 그 표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가서(Song of Songs)는 인간의 성에 대한 찬미이며, 이 본문을 읽을 때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누가 많은 이야기와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여자 목소리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성적인 표현에 있어서 상호 관계입니다. 자, 몇 가지 작업을 더 수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세기 동안 그것이 사람들을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에 계시다면, 첫 번째 아가 외에는 아가를 거의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가는 우화적인 아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읽는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그림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아름다운 그림,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이지만, 그 특별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른 제안과 함께 그것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기 초에는 이 작품을 일종의 의식극으로 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예배, 의례, 제의적 맥락에 들어갈 때 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외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둘은 함께 어울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서 몇 분 후에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거 알아요? 이것이 내가 착륙할 곳이고, 이것이 바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해 착륙하고 있는 곳입니다. 절묘한 사랑의 시들이다. 절묘한 사랑의 시는 잠시 후에 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즐거움의 절정을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섹스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암시나 암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명심하고 싶은 것은 정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이 끝나고 5장으로 들어가고 6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즉, 책의 꽤 중앙에 정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잠겨 있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원에는 주위에 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젊은 여성의 순결을 대표하는 인물. 그리고 연인은 그 정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이미지는 매우 명확한 성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숨겨져 있고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숨겨져 있고 보호되며 친밀합니다.

그리고 감각적이다. 다시 한 번 챕터 4, 12절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거기에 있는 이미지는 모든 감각에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적인 표현은 매우, 음, 전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렴구는 '때가 되기 전에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쫓아내고 위험한 영역으로 급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창세기 2장과의 연관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담과 이브의 원시적 순수함과 그들이 2장의 끝에서 가졌던 친밀함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서로에게 주신 대로 동산에서.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십시오. 노래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노래에는 없는 게 많지만 우리의 해석적 문제는 두 가지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읽었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장에서 강력한 불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야훼에 대한 암시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무리입니다. 이 노래에는 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는 종교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노래에는 성전도 없고, 신권도 없고, 희생 제물도 없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표현이네요.

만약 내가 그것을 모두 하나로 묶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이유에 대해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괜찮았어? 괜찮은. 글썄요,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적인 사랑에 대한 훌륭하고 놀라운 묘사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명됩니까? 글썄, 그들 각각은 수많은 이미지, 수많은 이미지로 서로를 설명합니다. 잠시 후에 그 이미지 중 일부를 볼 수 있는 작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고, 말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로는 설명하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눈이 참 좋네요. 아, 눈이 참 예쁘네요.

그래서 뭐? 다른 것을 말해 보세요. 그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아름다운지를 표현하기 위해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멋져요. 정교한 새와 동물 이미지. 아시다시피, 누군가가 당신의 머리카락이 길르앗에서 내려오는 염소 떼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흥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염소 떼를 본 적이 있다면, 그 염소들이 바람에 휘날리며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지는 모습을 여기에 사진으로

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여러분에게 흘러내리는 길고 검은 아름다운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줍니다. 꽃무늬, 보석, 향신료, 그리고 염색된 음식, 특히 꿀, 우유, 포도주.

태양, 달, 별.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 말하려고 그 천체를 호출하는 것까지 말이죠. 그리고 지리적 참조도 있습니다.

길르앗, 레바논, 디르사. 아, 아니, 그게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나 아가서조차도 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게티, 그건 노래의 노래에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던 장소. 그리고 물론 다산이 여기서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풍요로움을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성적으로 모이면 자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풍요로움은 이것과 함께 몇 가지 흥미로운 상징적 함축성을 갖고 있습니다. 야외 사진이 많아요. 조금 전에 정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정원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이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게이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 정원이었던 *pardes*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넓은 문화적 맥락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바위 틈에 있는 사랑하는 자 곧 바위 틈의 비둘기에 대한 묘사를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보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타워는 단순한 타워가 아닙니다. 타워는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여기에 우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뒤에 있으면 이런 내용도 읽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습니다. 베일 뒤에 있는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군요.

음, 여기 작은 비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염소 떼와 같습니다. 네 이는 갓 깎은 암양 떼 같구나.

이제 모든 작은 동물들에게는 양털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목은 돌 위에 세워진 다윗의 탑과 같습니다. 네 두 젓가슴은 새끼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당신의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내립니다. 글썄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죠? 등등.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석류. 석류 사원입니다. 그것도 꽤 멋지네요. 문자 그대로 읽는 데 흥미로운 연습입니다.

이제 몇 가지 사항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성적인 사랑을 축하하기 위한 것인가요? 그것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질문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의 중요성을 경시하려고 노력했던 여러 세기에 걸친 그리스도교국과는 달리, 아가서는 친밀한 성적 표현이 참으로 하느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George Schwab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것인데, 내 생각에 그가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 멋진 성적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친밀감과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쟁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단어를 정의해야 합니다. 논쟁이란 무엇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주장이에요. 이는 전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그것은 언어 전쟁이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공개 매춘 방식으로 성을 이용하는 더 넓은 문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알 숭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알 자신의 존재와 다산과 농작물의 공급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의 일부였습니다.

아마도 이 책은 민영화를 의도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표현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던 만연하고 성스러운 매춘에서 섹슈얼리티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친밀하고 경이로운 사랑, 하나님의 선물을 축하하는 일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 사이에 어떤 연관도 없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 그래서 아마도 그의 이름이 거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다른 의식적인 언어가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 아름다움을 기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대적 표현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위협받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 시편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연인이 거기에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황이 다소 미약해질 때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들어온다. 두 번째로 온 파수꾼이 조금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일부 위협이 제기되고 이해됩니다.

자, 세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8장 6절과 7절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직접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말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시도하고 수행하기 위해 가장자리를 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압도적인 매력을 뜻한다. 제가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리고 그만 두겠습니다.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

그것은 무덤처럼 굴하지 않는 질투입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처럼, 강력한 불꽃처럼, 혹은 야훼의 불꽃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많은 물이라도 사랑을 소멸할 수 없습니다.

강은 그것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집의 전재산을 사랑으로 바친다면 그것은 완전히 멸시를 당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10시가 지났 으니까 그만둬야겠습니다 .

금요일이에요. 안식일 샬롬.